

 “독도 지키는 소중한 자료로” 2 독도 고지도 기증한 정각 스님	 “거짓 나 죽이고 참나 살려” 4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현장	 “수행으로 에너지 충전” 5 서울 보리선원 벽곡 수행현장	 “해법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7 선지사-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
--	--	--	--

“‘인스턴트 해탈’ 수련문화 위협”

불교학연구회 워크숍서 우혜란씨 ‘종교영역 상품화’에 일침

웰빙 열풍과 함께 ‘기 신드롬’이 확산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기공과 관련해서는 단월드, 수선재 등 기업화된 수련단체가 등장했고, 서구에서 아바타 코스를 수입한 마음선원, 동사십 등이 출현했다. 단(丹), 선(仙), 요가 열풍에 이제는 불교계와 지자체도 나서 ‘명상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 나타난 전통 수련·종교문화의 상품화가 불교 등 전통종교와 수련문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계가 웰빙 붐에 편승해 ‘전통’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장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침을 던진 이는 우혜란(가톨릭대 강사)씨다.

우씨는 8월 9-10일,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가)가 ‘신자유주의와 불교’를 주제로 화순 유마사에서 개최한 한국학계 워크숍에서 발표논문 ‘신자유주의와 수련문화의 상품화’에서 최근 한국의 전통종교·수련문화가 어떻게 소비문화에 흡수돼 상품화되고 파편화 됐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기수련 문화 등 비제도화된 종교영역을 시작으로 종교문화의 상

품화가 진행됐다”고 말하며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 여파로 재정자립에 고민하는 지자체들도 전통 수련 문화의 관광상품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강화군이 주최한 ‘제1회 마나산 기죽제’와 경북 문경시가 올해 안에 완공할 ‘명상 웰빙타운’ 등이 그 예다.

범어사와 부산시가 2005년부터 추진했던 ‘선문화체험타운’ 등을 근거로 우씨는 “불교계도 지자체와 협력해 명상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지자체 등이 추구하는 것은 ‘명상 복합쇼핑몰’ 형태다. 이는 신자유주의 특정한 소비주의가 종교영역에 침투한 현상으로, 종교전통에

서 제시되던 세트메뉴가 소비자 선호에 맞춰 아이템별로 분화된 것”이라 지적했다. 우씨는 단기간 자기완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아바타 등을 ‘인스턴트 해탈’이라 표현하며, “단월드, 동사십, 명상월드 등 단체들이 불교 명상 전통을 심리치료 요법의 하나로 축소시키고, ‘해탈’을 상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최근 불교계도 ‘인스턴트 해탈’ 트렌드에 편승해 명상치료학과 불교심리치료학과 등이 창립됐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같은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불교 명상전통이 일종의 치유요법으로 재해석되고 축소돼 파편화 과정을

경고 있는 것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우려는 듣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장)은 “상품화, 파편화가 아닌 대중교화 방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명칭부터 불교를 연상시키는 ‘붓다월드’라는 수련단체를 예로 들며, “불교계가 명상시장에 나선 것은 불교 명상법의 왜곡을 막는 호고(護敎)적 작용과 사이비 단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물밑에 있던 수련문화에 대한 논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하계 휴가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종교편향 종식을”

全 종단 결집 범불교도대회 개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종단과 불교NGO, 신도단체 대표 90여명이 참여한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는 8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모여 ‘오만·독선·이명박 정권 규탄, 종교차별 종식 범불교도대회’를 8월 2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범불교비상대표자회의는 ▲종교편향 종식 ‘범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종교차별과 갈등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

청장 등 관련 공직자 파면 등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종교편향 대응기구로 활동해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봉은사 등 주요 사찰에서는 규탄법회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등 종교편향 종식을 요구하는 불교 각계의 성명발표와 항의집회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20일 제177차 중앙총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학생 불자 다 모여라!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김정현)는 8월 7-10일 경남 진주 남해, 하동일대에서 “2008 대불련 여름대회(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대학생불자들이 한곳에 모였으며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국의 150개 대학에서 250여 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과 학생들이 7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뜨거운 3박4일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출간기념 돈연 법사 강연회

〈황금털사자의 미미소〉1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에서 고암스님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사들이 남긴 깨달음의 원음을 선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선시 해설서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불교계는 물론 문단에 서도 선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을 기념해 돈연법사(사진)를 초청해 선시 특강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선사강연회**
- ◆강연 주제: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선시의 자리
강사: 돈연 법사(시인,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 ◆인사말씀
송준영 시인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저자)
 - ◆특별 연주
첼로: 도원녀(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 참가방법**
- ◆동참금: 1만원
 - ◆계좌 입금 후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뱅크) 038-25-0008-365.
(농협, 예금주 에이치비뱅크) 053-01-269050.
 - 입금 후 전화 하실 곳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02-2004-8200 (담당자) 2004-8233.
 - ◆일시: 2008년 8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예정)
 -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취재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기자(신입)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 ◆모집부문: 취재기자 ◆모집인원: 신입 0명
- ◆지원자격: 대졸자 이상 ◆접수기간: 2008년 8월 15일(금)까지
- ◆문의: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news.com
-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명시)-자기소개서
- 이메일 제목에 [취재기자 지원 이름_연락처] 순으로 명기.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민사·형사·가사·행정

강령회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부처님 제1공양
108참회건강 **청다향**

백두대간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관백, 솔, 속, 산요초의 황금빛 향기의 핵을 증류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수수에 화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목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경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영가등, 주름등, 왕생극락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돼 드림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